

2021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봄철 학술대회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커뮤니케이션

일시 : 2021년 6월 12일 (토)

장소 : 온라인 ZOOM (사전등록자 대상 Link 안내 예정)

주최 및 주관 :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 | | |
|---------------|----------|--------------------------|
| 12:30 - 12:50 | 등록 사회 | 최희승 (학술이사, 서울대 간호학과) |
| 12:50 - 12:55 | 개회사 | 함상근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
| 12:55 - 13:00 | 학술대회 소개 | 손윤락 (학술이사,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

Session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꿈꾸는 일상의 회복

| | | |
|---------------|---|-----------------------------|
| 13:00 - 13:40 | 타인의 삶에 대한 상상 <덕분에 챌린지> 그리고 <덕분이라며 챌린지> | 이은영 (무임소이사, 경희대 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
| 13:40 - 14: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소통 | 최성민 (경희대 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
| 14:20 - 14:30 | Tea time | |

Session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커뮤니케이션 Part I

| | | |
|---------------|----------------------|----------------------|
| 14:30 - 15:10 | 코로나19 시대 임종 돌봄과 의사소통 | 유신혜 (서울대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
| 15:10 - 15:50 | 코로나 우울과 커뮤니케이션 | 백종우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
| 15:50 - 16:00 | Break time | |

Session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커뮤니케이션 Part II

| | | |
|---------------|---|-------------------------|
| 16:00 - 16:30 | 코로나 시대 마스크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 김찬웅 (간행위원장, 중앙의대 응급의학과) |
| 16:30 - 17:00 |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학과 졸업학년 학생들의 실습경험 | 안혜란 (대구가톨릭대 간호학과) |
| 17:00 - 17:15 | [자유연제1]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오류 말하기 대화 내용 분석 | 박경혜 (연세원주외대 의학교육학과) |
| 17:15 - 17:30 | [자유연제2] 응급의학과 의사의 뇌사장기조직기증 권유 대화의 경험 | 박승이 (동아외대 의학교육학교실) |

사전등록안내

1. 사전등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 http://www.planbcoms.co.kr/event_page.php?id=26
3. 사전등록 기간 : 2021.05.11(화) ~ 06.07(월)
4. 등록비 : 연회비를 납부 회원 2만원, 연회비 미납 회원 4만원
비회원 4만원, 대학원생 1만원
회원가입 홈페이지 : <http://www.healthcommunication.or.kr/main.php>
(회원 자격은 2021년도 연회비 2만원 납부자 또는 평생회원에 준합니다.)
5. 입금방법 : 사전등록 신청 후 아래 학회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우리은행 1005-502-695845 예금주: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문의처

*플랜비 커뮤니케이션
t)010-2821-9639
e)planb.donghee@gmail.com

사전등록 바로가기



Invitation Letter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색으로 유혹하는 생동하는 봄과 푸르른 여름처럼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찾아왔지만, COVID-19 범유행은 의료현장에 계신 회원님들의 헌신과 새로운 백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내며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COVID-19 범유행이 시작되는 시기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했고, 이제 재택/원격근무가 일상화되는 등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변환되며 생긴 새로운 사회경제적 상황들은 경제위축, 양극화 심화, 일자리 문제 뿐 아니라 서구사회에서 혐오의 확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의료계 역시, 의료시스템과 공공보건의료 문제 뿐 아니라 의료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건강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효율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할 것인지, 비접촉/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환자-의료진, 가족-의료진간 의사소통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또한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등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철학자의 시선으로 COVID-19 중에 일어난 의료계 파업 등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코로나 시대의 의료커뮤니케이션, 가족과의 면회도 제한된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이 경험하는 우울과 임종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또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류 말하기, RIAS로 분석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암 생존자 관련 질적 연구 등 현장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결과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만나는 일은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는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참여하여 쌓여진 관계를 바탕으로 학문적 성과를 나누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함상근